

月光寺址에서 圓朗禪師大寶禪光塔碑를 옮긴 사실은 현재 이 塔碑를 서울 景福宮內에 寶物 제 三六〇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으므로 다시 말할 여지가 없으나 塔碑와 함께 수습 보존되었어야 할 大寶禪光塔, 즉 塔碑의 主人公인 圓朗禪師의 浮屠에 관해서는 전해지는 바가 없어서 항상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다만 朝鮮古蹟圖譜 四, 統一新羅時代 四(四六三頁 圖一五七)에 「廢月光寺浮屠殘石(忠北堤川郡 月岳山)」이라 하여 圖版一枚가 게재되어 있으므로(圖5, 참조) 이 圖譜가 발간된 一九一六年頃까지는 現地에 그 部材들이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이 殘石들이 어떻게 수습되고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나 전해지는 말들이 없었다. 그리하여 筆者는 항상 이 浮屠에 대해서 궁금하였으며 작년에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는 古蹟圖譜 圖版 이후 六十年만에 또한번 圖版을 작성한다고 생각하여 깊은 감회마저 느끼기도 하였다.

寺址 일대는 현재 모두 耕作地로 변하였으므로 一見하여 伽藍의 配置 등을 알 수는 없게 되었다. 다만 아직도 一段의 큼직한 石築址가 남아 있어 대개의 寺域은 짐작할 수 있다. 이 二段의 중간 중간에 낮은 石築址가 二段 있으나 이것은 본래의 것이 아니고 後代의 시설로 보인다. 下段은 二~四m 높이의 石築으로 巨大한 石材를 사용하였고 上段의 石築은 높이 一~三m로 割石 등으로 築造하였으며 중간의 二段 後補石築은 잔돌로 쌓았다. 石築의 길이는 上·下段은 三〇~四〇m가 되고 중간 二段은 二〇~三〇m 정도가 남아 있으며 各石築 틀이나 寺址일대에는 羅·麗代의 瓦片과 青磁, 白磁片들이 散在하고 아주 투박한 朝鮮時代의 瓦片도 눈에 띄인다. 民墓가 數基 있는데 寺址의 중심되는 곳의 民墓는 法堂址로 생각된다. 上段 築臺위에서는 方形의 柱礎石(一邊長 六一cm, 높이 三七cm, 角形柱座高 三cm)이 노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형태나 治石手法으로 보아 創建期인 羅代의 遺品으로 추측되었다.

上段石築 밑에는 石鍾型浮屠 一基가 남아 있는데 下部가 묻혀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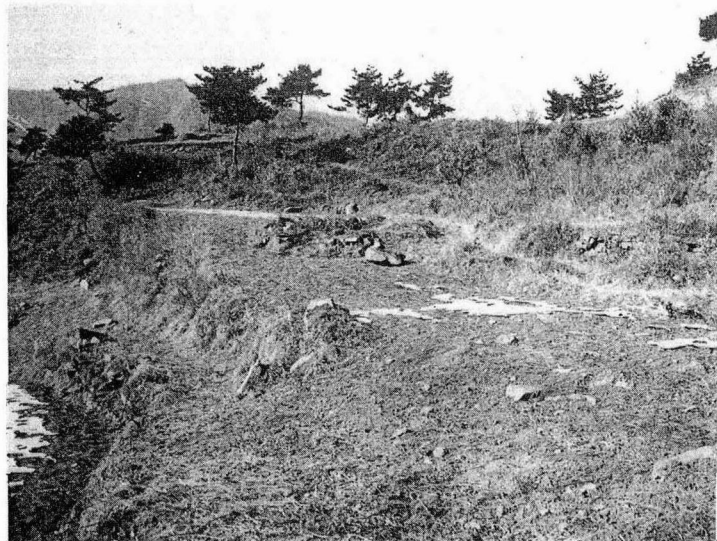


圖 2. 月岳山 月光寺址 (上段 臺地)

基臺 등의 下部構造를 알 수가 없다. 典型的인 石鍾型으로서 頂上의 寶珠는 별도로 만들어 끼웠던지, 그 흔적으로 頂面에 큼직한 圓孔(徑十二cm, 深九cm)이 있다. 塔身에는 아무런 彫飾도 없고 부드럽게 治石하였으며 頂面에는 寶珠를 받든 八瓣을 一條(幅 三·五cm) 돌리고 그 주변에 復葉의 伏蓮 四瓣을 큼직하게 彫刻하였다. 그리고 各蓮瓣사이에 또한 復葉의 瓣端 一瓣씩을 彫飾하여 결국은 八瓣으로 볼 수 있겠다. 이 浮屠는 柔軟한 塔身의 治石手法이나 頂面의 蓮瓣彫飾, 寶珠과 八瓣帶 등이 아

직도 古式의 作風을 잃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造成時期는 麗末鮮初로 推定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그리하여 이 浮屠는 高麗末 禿王 五年(二二七九 A·D)에 건조된 神勒寺 普濟尊者石鐘(보물 제二二八호)과 比較할만한 것으로서 注目해야 될 것이다. 各部의 實測値는 現高 六五 cm, 下部徑 六五 cm, 中上徑 七〇 cm, 蓮瓣長 一四 cm이다.

上段築臺 위를 寺刹의 중심으로 볼 때 여기서 약간 벗어난 뒷쪽에 약 五〇평의 높직한 臺地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塔碑가 있었던 것으로 현재도 移搬 당시의 表石이 서 있어서 搬出年代와 場所가 「大正十一年, 朝鮮總督府博物館」임을 곧 알 수 있다.

이 移搬表石에서 서쪽으로 비탈진 山기슭에는 民墓 二基가 있으며 그 西南쪽 바로 앞에 文제의 圓朗禪師 浮屠가 있었던 것인데 塔碑와는 약 三五 m相距가 되겠다.



圖 3. 月光寺址의 石鐘型 浮屠

III

현재 圓朗禪師의 浮屠는 基壇部의 一部 部材만이 남아 있어 흐터져 있는데 一九一六年 당시에도 基壇部材만이 남아 있는 圖版뿐인 것으로 보아 그 이상의 各部材는 일찍부터 缺失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당시 古蹟圖譜의 圖版名稱에도 「廢月光寺 浮屠殘石」이라 하여 많은 部材를 잃은 「殘石」임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一九一六年 당시의 圖版(圖 5, 참조)을 보면 地臺石이 보이고 그 위에 眼象石과 蓮華臺 二石이 걸쳐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現地調査에서



圖 4. 흐터진 圓朗禪師大寶禪光塔材

혹시 또 다른 部材가 素出될까 하였는데 주변 일대는 물론 松界里 部落・民家에서도 옮겨 놓은 것을 볼 수 없었으며 당시의 「殘石」들도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이들 部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二枚의 板石으로 이루어진 方形의 地臺石 上面에 八角으로 角形의 碑臺를 마련하고 그 위에 下臺石을 놓았는데 下臺는 眼象으로 이루어진 側面石과 그 위의 蓮華臺石으로 構成되었다. 眼象石은 八角으로서 地臺石 上面의 八角의 碑臺에 꼭 맞게 놓여지는데 上・下端은 甲石形의 窟이 둘러 있고 各面에는 一區씩의 細長한 眼象이 彫刻되었다. 그러나 眼象 內에는 아무런 彫飾도 없다. 이 八角眼象石 위에 놓이는 蓮華臺는 伏蓮石으로 큼직한 複葉 八瓣이 둘러졌으며 各 瓣端에 一座씩의 窟이 장식되었는데 현재 완전한 형태를 보이는 窟穴은 없고 모두 破損되어 不完全한 형태와 흔적만이 남아 있다. 上面에는 弧形과 角形의 碑臺를 彫出하여 中臺石을 받게 되어 있는데 中臺가 없으니 어떠한 형태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碑臺가 八角임으로 그 위에 놓이는 中臺石도 平面이 八角일 것은 짐작되는 일이다.

中臺石은 缺失되었으나 현재 蓮華臺石 一座가 남아 있으므로 이것이 곧 上臺石임을 알 수 있겠다. 上臺石은 下面에 八角으로 角形과 弧形의 받침을 마련 하였는데 이것은 下臺 伏蓮石 上面의 中臺石 碑臺와 대칭적인 처리라 하겠다. 側面의 仰蓮은 上・下二列로 큼직한 複葉 八瓣씩을 둘러 重瓣을 이루고 있어 下臺의 伏蓮보다는 훨씬 華侈한 蓮華臺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上面은 仰蓮의 瓣端사이를 各邊으로 하여 八角을 이루는 아주 낮은 碑臺 一段이 있을 뿐 평평하며 이 위에 塔身을 받치는 碑臺의 시설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점으로 보아 혹시 이 시기에 建造된 다른 浮屠에서 볼 수 있듯이 別石으로 塔身과 碑臺를 造成하여 上臺 위에 놓았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九世紀末葉에 가까운 때에 建造된 寶林寺 普照禪師 彰聖塔이나 實相寺 秀澈和尚 楞伽寶月塔, 雙谿寺 浮屠 등에서 塔身 碑臺를 別石으로 造成하여 끼워 놓았음을 볼 수 있다.

現存部材의 各部 實測値는 다음과 같다. (cm)

- ① 地臺石 一枚의 크기 一六一×八四、높이 一五、上面 碑臺 全徑 一一二、一邊長 五〇、높이 三。
- ② 下臺 眼象石 全徑 一一八、높이 一九、上・下端 窟 二・五、三・五、一邊長 四六、四九、五〇、眼象 크기 三一×一四。
- ③ 下臺 伏蓮石 全徑 一一八、높이 二六、一邊長 五〇、上面 碑臺 下段 一邊長 三二、높이 一・五、上段 一邊長 三〇、높이 〇・五。
- ④ 上臺 仰蓮石 全徑 一三二、높이 二七、一邊長 五三、下面 받침臺 下段 一邊長 三〇、높이 〇・五、上段 一邊長 三一、높이 一・五 蓮瓣長 一六。

이 浮屠의 主人公인 圓朗禪師에 대해서는 塔碑에 의하여 상세히 알 수 있는 바 이 碑文에 따르면 禪師는 新羅末期의 名僧으로 唐에 留學한 바 이고 憲康王九年(八八三 A・D)에 六八歲를 一期로 入寂하였다. 다음 해 二月十日에 北院에 神柩를 모시어 葬禮하였으며 圓朗禪師라 追諡하고 塔號를 大寶禪光이라 하였다. 그리고 微臣(金穎을 말함)에게 명하여 碑讚을 修撰토록 하였으며 塔碑의 建立에 대해서는 碑文 末尾에

龍紀二年歲次庚戌九月十五日建門下僧眞胤等刻字

라 있으므로 곧 알 수 있는데 龍紀二年庚戌은 新羅 眞聖女王 四年(八九〇 A・D)에 해당한다.

그런데 禪師의 永訣에 대해서는 憲康王十年(八八四 A・D)이라 밝혔고 또 塔碑의 豎碑도 眞聖女王 四年(八九〇 A・D)임을 명시하였는데 禪師의 浮屠에 관해서는 塔號를 「大寶禪光」이라 하였다는 것 뿐으로 建造年代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碑文의 內容이나 當代에 建造된 여러 浮屠의 造成狀況등을 살펴서 이곳 浮屠의 建立을 생각해 볼 때 늦어도 塔碑가 建立될 때까지는 「大寶禪光塔」이라는 塔號가 정해진 禪師의 浮屠가 建造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됨에서 이 浮屠의 建造年代는 上限을 憲康王十年(八八四)、下限은 眞聖女王 四年(八九〇)으로 推定하고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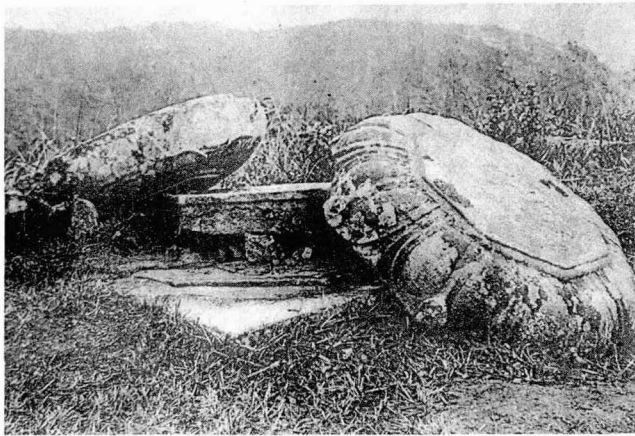


圖 5. 圓朗禪師大寶禪光塔材(1916년 朝鮮古蹟圖譜 圖版轉載)



圖 6. 圓朗禪師塔材(1975年 1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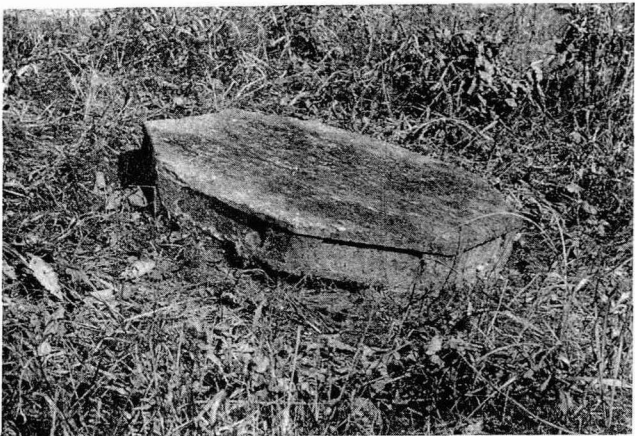


圖 7. 圓朗禪師塔材(1975年 1月)

基壇部に 있어서 方形의 地臺石上面에 八角의 四隅臺를 彫出하고 八角下臺眼象石을 받고 있는 형식은 憲康王 九年頃(八八三)에 建立된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에서 볼 수 있으나 이 智證大師塔은 眼象內에 獅子를 彫刻하고 또 그 위도 伏蓮石이 아니고 雲紋으로 장식하고 있어 圓朗禪師塔 下臺의 처리와는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 聖住寺址朗慧和尚浮屠에서는 下臺側面石의 八角 各面에 一區씩의 眼象이 있으나 그 안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으며 그 위에는 伏蓮石을 놓고 그 上面에 四隅臺를 마련하여 中臺石들을 받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黃壽永: 『新羅聖住寺 大朗慧和尚白月葆光塔의 調査』 考古美術 一〇〇號所收 一九六八年十一月發行. 참조) 이 朗慧和尚塔이 眞聖女王 四年(八九〇)

에 建造된 것으로서 圓朗禪師의 大寶禪光塔 建造年代의 下限을 잡은 眞聖女王 四年(八九〇)과 같은 年代임을 알겠다. 이것은 이곳 圓朗禪師塔의 建造年代를 推定함에 있어 보다 絶對年代의 推定에 많은 도움을 주는 注目되는 일로 좋은 比較의 대상이 되는 遺品이라 하겠다. 이상 몇가지 言反하였는데 현재 月光寺址는 황폐되고 浮屠도 完全히 못한 基壇部材 몇개 뿐이다. 그러나 이 部材의 各部 樣式과 手法은 造成年代가 확실시 되는 遺品이어서 또 하나의 基準年代를 잡게 하는 貴重함을 느끼게 한다. 더욱이 오늘날 新羅 浮屠가 아주 적은데 비록 部材 몇개이라 하여도 新羅 浮屠의 存在를 확실하게한 또 하나의 遺例로 여기에 소개하였다. (단국대학교 박물관장)